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 직원들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최근 진행했다. 12월 3일 영양팀 직원 14명은 김장김치 약 180포기를 담갔고, 12월 4일부터 이를 동안 의공팀, 심장검사팀 등 직원들이 풍납동과 마천동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50세대에 김치를 직접 전달했다. 사진은 김장김치 나눔 봉사에 참여한 영양팀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전화번호:

소속: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호 정답



제761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감사우체통 - 진통제보다 큰 힘이 된 한마디'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암병원간호1팀 최진 대리가 추첨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1월 1일(목)
발표 제765호(2026년 1월 15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신선명(중앙공급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정선희(암병원간호2팀)
최서연(응급간호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오지영(국제교류팀)
윤영미(내과간호2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박윤경(응급간호팀)
서영희(외래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강미아(외과간호2팀)
강주미(수술간호팀)

윤혜림(진단검사의학팀)

최정수(수술간호팀)
현지훈(영상의학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63 2025. 12. 15



말기 폐부전 환자 300명에게 새 삶 선물

진료시스템으로 매년 30건 이상 폐이식수술을 시행하며 호흡기나 에크모에 장기간 의존해 온 중증 환자들에게 새 삶을 선물해 왔다. 환자 중증도가 유독 높음에도 우리 병원은 5년 이상 장기 생존율에서 세계 유수 폐이식 센터보다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12월 9일 우리 병원에서 300번째 폐이식 수술을 받은 한 모 씨(앞줄 왼쪽 세 번째)와 보호자가 박승일 병원장, 집도의인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세훈 교수(앞줄 왼쪽 첫 번째, 네 번째)를 비롯한 폐이식팀 의료진과 함께 신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2면)

03 NEWS 3D 펄스장 절제술로 심방세동 치료

09 AMC 광장 난치병 극복을 향한 도전

14 나의 성장 이야기 슬픔은 나누고 행복을 채우는 '온·담회'

18 감사우체통 의사이자, 환자로서



서울아산병원 뉴스룸
병원 소식을 한눈에

페이식 300례… 생존율 세계 최고 수준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세훈·이근동 교수(왼쪽 두 번째, 세 번째)가 11월 21일 300번째 페이식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장기이식센터 페이식팀이 11월 21일 간질성 폐질환으로 폐가 딱딱해져 호흡에 어려움을 겪던 한 모 씨(남, 64세)에게 뇌사자의 폐를 성공적으로 이식하며 페이식 수술 300례를 달성했다. 페이식팀은 2008년 첫 뇌사자 페이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뇌사자 페이식 299건과 생체 페이식 1건을 시행했다. 이식 후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300명 중 약 66%는 에크모나 기계적 환기 장치를 장기간 유지한 중증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1년 76.5% ▲3년 67.9% ▲5년 64.2% ▲7년 60.5%로 매우 우수하다. 세계 유수 페이식 센터의 성적을 합

한 국제심폐이식학회의 생존율이 ▲1년 85% ▲3년 67% ▲5년 61%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병원은 중증도가 유독 높음에도 5년 이상 장기 생존율에서 앞선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생존율이 우수한 배경에는 유기적인 다학제 진료시스템이 자리해 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집도의의 누적된 수술 경험과 더불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장기 이식센터, 마취통증의학과, 중환자실, 병동 등 모든 의료진이 한 팀으로 집중적인 환자 관리를 시행하며 수술 후 출혈과 합병증을 줄여 왔다. 원인 질환으로는 폐가 딱딱해지면서 기능을 상실하는 특발성폐섬유증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폐쇄기관지 염,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폐질환, 중증 폐렴, 만성폐쇄성 폐질환, 특발성폐고혈압을 가진 환자들이 페이식을 받았다. 300번째 페이식 수술을 집도한 최세훈 교수는 “현재 우리 병원에서는 페이식 환자 5명 중 3명이 5년 이상 생존할 만큼 수술 성적이 크게 향상돼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승일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페이식 300례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페이식팀 의료진의 하나 된 팀워크가 자리해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말기 폐부전 환자들에게 새 삶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역학 반복 치료 시스템’으로 식도암 표적치료



박정훈 부교수 김도훈 교수
광역학 치료는 빛에 반응하는 광응답제에 레이저를 조사해 활성산소를 생성함으로써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치료법이다. 융합의학과 박정훈 부교수,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팀이 광응답제를 스텐트 표면에 코팅한 뒤 병변 부위에 배치해 두고, 스텐트 내부의 레이저 통로로 광섬유 카테터를 삽입해 레이저를 반복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광역학 치료 시스템을 최근 개발했다.

연구팀은 스텐트 내부에 투명한 원통형 레이저 전용 통로를 만

들었다. 스텐트 중심에 위치한 레이저 통로를 통해 균일하게 빛을 조사하고, 스텐트와 병변의 거리를 일정하게 만들어 치료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또한 치료 직후 스텐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해 장기간 거치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였다. 되지 식도 모델을 통해 식도암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치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치료 범위가 식도 점막하층까지 확장되고 고사·염증 등 조직 손상은 최소화됐다. 스텐트 관련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바이오마티리얼스 리서치」에 최근 게재됐다.



심장내과 김준 교수(왼쪽 두 번째)가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를 3D 펄스장 절제술로 치료하고 있다.

부정맥의 한 종류인 심방세동은 심방이 매우 빠르게 뛰고 심실이 불규칙하게 뛰어 뇌졸중이나 심부전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 약물치료만으로 조절되지 않을 경우 고주파 도자절제술이나 냉각절제술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드물게 식도열 손상, 폐정맥 합병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펄스장 절제술은 고에너지 전기

장인 펄스장을 이용해 심방 근육조직만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시술이다. 시술 시간이 1~2시간 내외로 짧고 치명적인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매우 낮다.

심장내과 김준 교수팀이 최근 지속성 심방세동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 환자에게 ‘3D 펄스장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실시간 3D 영상으로 구현해 치료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펄스장 절제술과 달리 별도의 엑스레이 촬영 없이도 카테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방사선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 병원은 3D 펄스장 카테터가 기기 자체에 장착된 최신 장비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기존 3D 펄스장 절제술이 3차원 영상 구현을 위해 추가로 카테터를 연결해야 했던 것과 달리 새 장비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기존 펄스장 절제술과 큰 차이가 없어 환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 심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



학회 첫날인 11월 27일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왼쪽 첫 번째)가 개회 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제10회 복합 심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COMPLEX PCI)가 11월 27일부터 이틀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렸다. 심장혈관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심장병원이 후원하는 복합 심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는 젊은 의학자와 의료 전문가들에게 중증

심장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실용적인 테크닉을 공유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이다.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 박덕우 교수, 안정민 부교수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콜롬보 교수, 일본의 타카시 아카사카 교수, 대만의 쎈 리 카오 교수 등 심장혈관중재시술 분야 세계 석학들이 연자로 참여해 심혈관 분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 의료지식을 전달했다.

학회 첫째 날에는 좌주간부 및 다허관 질환, 분지부병변, 심혈관 이미지 및 생리학, 만성폐색병변, 고위험 중재시술 및 석회화 병변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 중심의 워크숍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학회의 하이라이트인 라이브 시술 세션이 진행됐다. 우리 병원을 중심으로 중국 난징 제1병원, 일본 도요하시 심장센터 등 총 13건의 심장 시술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복잡한 환자 케이스에 대한 심혈관 분야 전문가들의 특별 강의도 함께 진행돼 큰 관심을 끌었다.

아프리카 우간다서 의료봉사



로 구성된 봉사단은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 위치한 베데스다 메디컬센터 등 3곳에 치료소를 마련하고 현지 주민 850여 명을 진료했다. ▲유방 종양제거술, 갑상선 수술 등 수술 18건 ▲갑상선·유방·심장 초음파, 심전도 등 검사 163건도 함께 진행했다. 봉사단은 우간다 둘라고 국립병원을 방문해 병원장 및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봉사 확대 및 현지 의료진과의 학술 교류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봉사에 참여한 유방외과 김이진 임상강사는 “기본적인 진료뿐 아니라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외과 수술도 진행했다. 의료취약

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을 도우며 의료봉사의 가치와 기쁨을 느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병원 의료봉사단이 11월 10일부터 4일간 우간다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의사 6명, 간호사 5명, 의공기사 1명 등 12명으

PI활동 결과보고회



PI활동 결과보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해 동안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PI활동 결과보고회가 12월 1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보고회에는 직원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PI활동 우수주제 구연발표 ▲병원 질향상활동 진행경과 공유 ▲QPS 히어로 활동 결과 보고 ▲우수부서 시상 등이 진행됐다. 대상은 내과 간호2팀 HED 유닛, 신장내과가 진행한 ‘혈액투석 중 비예기적 상황 발생으로 인한 조기 종료 감소 활동’, QPS 히어로 최우수상은 특수검사팀 유상수 과장이 진행한 ‘병동-검사실 간 인수 인계 강화에 돌아갔다. 이 밖에도 금상 2팀, 은상 3팀, 동상 5팀, 장려상 5팀, 2024 우수주제 지속유지상 2팀, QPS 히어로 우수상 1팀, 장려상 4팀이 수상했다.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성과교류



11월 26일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 사업 성과교류회

가 11월 26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 사업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 가능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병원과 연구기관, 학회와 산업체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여했으며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정책과 실행 전략 ▲AI 기반 보건의료데이터 자동화 기술 개발을 위한 준비 및 기반 구축 등을 주제로 한 성과 발표와 토론이 진행했다.

고객칭찬·협업 우수상



고객칭찬 최우수상을 받은 암병원간호2팀 권유진 주임(왼쪽 여섯 번째)이 박승일 병원장(왼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분기 고객칭찬·협업 우수직원 시상식이 최근 진행됐다. 고객칭찬 최우수상은 암병원간호2팀 권유진 주임이, 고객칭찬 우

수상은 심장병원간호팀 김윤선 차장 등 16명이 수상했으며 협업 우수상은 시설팀 송재호 대리 등 4명이 받았다. 고객칭찬 최우수상 수상자는 30만 원, 고객칭찬 우수상과 협업 우수상 수상자는 2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상장, 꽃다발, 기념품을 받았다.

고객칭찬 최우수상 암병원간호2팀 권유진

고객칭찬 우수상 심장병원간호팀 김윤선,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지훈, 영상의학팀 남조현, 위장관외과 민사홍, 외과간호1팀 박혜연, 내과간호1팀 윤여진, 외과간호2팀 윤지선, 암병원간호2팀 윤채빈, 외래간호팀 이상미, 암병원간호1팀 이신혜, 내과간호1팀 이아영, 외과간호1팀 이지수, 외래간호팀 이효진, 내과간호2팀 조재령, 핵의학팀 최재민, 대장항문외과 최혜윤

협업 우수상 시설팀 송재호, 진료협력팀 유선미, 내과간호1팀 원혜리, 비뇨의학과 홍준혁

세포치료센터 심포지엄



세포치료센터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1회 세포치료센터 심포지엄이 11월 20일 연구원 소강당에서

열렸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전환, 난치질환 치료 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신약·재생치료제 개발 ▲당뇨병성 신장질환 및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교정 기술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신동명 세포치료센터소장은 “줄기세포, 유전자 편집, 오가노이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난치질환 치료의 새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불우환자지원	(재)구원장학재단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강동구의사회 1,000,000원	110,000,000원
강남에프엠의원	김영석 1,000,000원	
권태진	김태리 300,000원	
박창순	김현숙 300,000원	
오재갑	오보미 300,000원	
이정인	이슬 1,000,000원	
이창익	한수정 100,000,000원	
임채민	한정우 200,000원	
정문원	함정우 10,000,000원	
정호용	흔한컴퍼니 30,000,000원	
조현욱	조현우 1,000,000원	
(주)엘코리아	이슬 100,000,000원	
	이슬 1,000,000원	
직원 및 직원가족	불우환자지원	(재)구원장학재단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183병동 2,000,000원	
김동관	김동관 1,000,000원	
황유진	황유진 1,400,000원	
불우환자지원	183병동 1,500,000원	
손혜진	손혜진 5,000,000원	

- 2025년 11월 30일 기준,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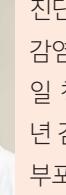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동정

전사일·김성한 교수 감염병 예방·관리 유공 정부포상



전사일 교수



김성한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전사일 교수와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가 11월 28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감염병 관리 콘퍼런스에서 정부포상을 받았다. 전사일 교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진단검사의학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코로나19, 엠폴스, 호흡기 바이러스 등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체계 발전과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성한 교수는 감염관리센터(CIC) 설립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유행 당시 서울시 중증 환자 대응 정책 수립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 관련 학술연구를 통해 의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최우종 교수 대한산과마취학회장



마취통증의학과 최우종 교수가 최근 대한산과마취학회 제15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최 교수는 “고령 및 고위험 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산과마취 분야는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한 진료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정기적인 학술 교류와 활발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 겠다”고 말했다. 최 교수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외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신성 교수



남궁정만 교수



김성민 조교수 (ATW 2025)

외과 의료진이 11월 20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의식학회 제55차 국제 학술 대회 (ATW 2025)에서 수상했다. 신·췌장이식외과 신성 교수와 소아외과 남궁정만 교수는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논문과 이식 분야 논문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학술상 부문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성민 조교수는 ‘간이식 후 발생한 이식 후 림프증식성 질환의 임상·병리학적 특성과 예후 분석’을 주제로 42세 미만의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뱅가드 어워드’를 받았고 ‘높은 MELD(≥35) 수혜자에서 생체 간이식이 사체 간이식보다 신기능 회복에 미치는 이점: 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주제로 최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정형외과 의료진 최우수논문발표상



이호승 교수



최영락 교수



서재현 임상강사

정형외과 이호승·최영락 교수, 서재현 임상강사 연구팀이 11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제35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연골하 낭종을 동반한 거골골연골 병변의 영상학적 진행: 중앙값 98개월 추시 연구’를 주제로 최우수논문발표상을 받았다.

최세훈 교수, 김보규 레지던트 보령의사수필문학상 동상



최세훈 교수



김보규 레지던트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세훈 교수와 내과 김보규 레지던트가 제21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의사가 직접 쓴 수필을 통해 진정한 인술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주)보령이 2005년에 제정한 문학상이다. 최세훈 교수와 김보규 레지던트는 각각 ‘구원의 실마리’, ‘구원의 손길’이라는 작품을 출품해 이상을 받았다.

송우정 교수 유럽호흡기학회 만성기침TF 의장



호흡기내과 송우정 교수가 최근 유럽호흡기학회 (ERS) 만성기침국제전문가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유럽호흡기학회는 1990년 설립된 유럽 최대 규모의 호흡기 분야 학술 단체로, 160여 개국 3만 5,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학술 활동을 펼치며 호흡기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송 교수는 2019년 유럽호흡기학회 만성기침 가이드라인 개정에 참여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송 교수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다.

오민영 부교수 최우수논문상



핵의학과 오민영 부교수가 11월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64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24차 아시아핵의학협력기구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오 부교수는 ‘중추신경계 림프종에서 18F-FDG PET/CT를 활용한 예후 예측 및 치료 반응 평가의 향상’을 주제로 이상을 받았다.

김성훈 부교수팀 우수연제상



김성훈 부교수



김동규 연구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부교수와 김동규·윤예린·김현석·서우영 연구팀이 11월 22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연구팀은 ‘마스킹 오토인코더 기반 결측값 보완을 통한 수술 후 사망 예측 성능 향상: 다기관 연구’를 주제로 이상을 받았다.

정수민 부교수, 이효은 임상강사 학회서 수상



정수민 부교수



이효은 임상강사

소아외과 정수민 부교수와 임상약리학과 이효은 임상강사가 최근 열린 대한임상약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정수민 부교수는 ‘단일 집단에서 분산 정수를 위한 우도 기반 신뢰구간의 우수성’을 주제로 우수논문상을, 이효은 임상강사는 ‘장기지속형 적혈구 생성 촉진제 GX-E4의 한국인 비투석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서의 집단 약동학 분석’을 주제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유소영 부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빅데이터연구센터 유소영 교수가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유 교수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최적화된 운영 체계를 정립하고, 2차 활용 데이터 거버넌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김찬식 조교수



이준석 임상강사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이 11월 21일부터 3일간 열린 제80차 대한통증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김찬식 조교수는 ‘만성 하지 신경뿌리통증 환자에서의 박동성 고주파술’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근 1년간 국내·외 SCI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중 관련 분야 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구를 선정해 수여하는 ‘SCI(E) 학술상’을 받았다. 이준석 임상강사는 ‘경추 신경뿌리통증 환자에서 성상 신경절 차단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후향적 연구’, 한민수 임상강사는 ‘기계적 이질통에 대한 고장성 식염수의 효과: 무작위대조시험의 하위군 분석’을 주제로 각각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김미혜 차장, 여현정 과장 구연발표 우수상



김미혜 차장



여현정 과장

내과간호2팀 김미혜 차장, 암병원간호1팀 여현정 과장이 11월 28일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구연발표 우수상을 받았다. 김미혜 차장은 ‘혈액투석 환자의 동정맥루 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혈관 접근로 생존율 향상 활동’, 여현정 과장은 ‘상처장루챔피언 주도 구조화된 욕창 예방활동’을 주제로 각각 이상을 받았다.

서민경 차장 의료사회복지사상



사회복지팀 서민경 차장이 11월 17일 열린 제1회 의료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에서 의료사회복지사상을 받았다. 서 차장은 난치성 소아 히귀질환 등 중증도가 높은 고위험 환아 및 위기가정 환자들의 진료비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의료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상을 받았다.

인사

보직임명

정읍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 겸 서부지역 관리본부장	김준형 임: 재단사무처 복지사업실장
서울아산병원	운영지원실장	손종석 임: 정읍아산병원 경영지원본부장 겸 서부지역 관리본부장
재단사무처	경영지원팀장	최희식 임: 서울아산병원 운영지원실장
서울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	윤천식 임: 재단사무처 경영지원실장
재단사무처	경영지원실장	박철완 임: 서울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
강릉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 겸 동부지역 관리본부장	오성규 임: 강릉아산병원 경영지원본부장 겸 동부지역 관리본부장

- 2026. 1. 1부.

위장관외과	임상조교수	고창석 임: 위장관외과 의국장
		- 2025. 11. 1부.

간암 건강강좌



간암 건강강좌에서 의료진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간암 환자를 위한 건강강좌가 11월 25일 동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간암을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에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강좌에서는 ▲간암의 예방요법과 영양관리 ▲간암의 최신 수술적 치료 ▲간암의 방사선치료와 최신 항암요법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기훈 간암센터소장은 "이번 건강강좌가 환자의 간암 치료 후 관리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디어 스페이스 개최



아이디어 스페이스 전시회에서 직원들이 전시 작품들을 둘러 보고 있다.

하반기 아이디어 스페이스 전시회가 11월 25일부터 이틀간 서신관 직원식당에서 진행됐다. 아이디어 스페이스는 보다 나은 환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직무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안제도'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는 '아이디어 팩토리' ▲고객 경험 개선 아이디어를 함께 실행해 보는 '아이디어 AMC' ▲의료 현장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협업 프로그램 '아이디어 콜라보'의 사례들이 소개됐다.

재활 사랑나눔 봉사



재활 사랑나눔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직원들이 12월 6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송파구보건지소를 방문해 진료, 교육, 물품 기부 등을 하는 '재활 사랑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재활의학과 의사 8명을 비롯해 직원 30명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근골격 통증, 퇴행성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진료하고 맞춤형 치료와 운동 교육 등을 진행했다. 또한 방한용품, 악력기 등 4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자원봉사자 시상식



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우리 병원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원봉사자 시상식이 12월 3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자원봉사자 76명이 개근상을, 올해를 끝으로 은퇴하는 자원봉사자 9명이 은퇴봉사자상을, 500시간 이상 봉사에 참여한 봉사자 52명이 봉사시간상을 각각 받았다. 한편 자원봉사자회는 그동안 모은 후원금 300만 원을 불우 환자 2명에게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난치병 극복을 향한 도전



신동명
세포치료센터소장

트로, 줄기세포 기초연구부터 치료 기술의 임상 단계 적용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 연구비 확보를 통해 센터 산하 연구자들은 난치병 극복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가 임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점차 확립되고 있다.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2월에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그동안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한정되었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다양한 질환군으로 확대됨으로써 세포치료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병원 주도의 임상연구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센터는 지난 10여 년간 전임 센터장인 오연복 교수와 김승후 교수를 중심으로 축적된 줄기세포 기초·중개 연구 성과를 임상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있다. 연구 단계에서 입증된 줄기세포 치료법이 실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센터는 한 번의 연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다음 연구와 신개념 치료법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R&D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축적된 경험과 성과는 새로운 연구자들에게 다시 동기와 자원으로 환원돼 병원 내 첨단재생의료 연구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아산메디클러스터에 최적화된 세포치료 플랫폼과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첨단재생의료 R&D 생태계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물하고 세계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표준을 제시하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세포치료센터의 불은 늦은 시간까지 환하게 켜져 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 의료 협력에 힘 보태고 싶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서비스 패트릭 전문의

저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사바주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다 올해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을 처음 알게 된 건 2023년 아시아·태평양 성형안과학회에서였어요. 현재 지도교수인 사호석 교수님의 탁월한 치료 및 연구 성과뿐 아니라 첨단 치료 장비, 의료진의 수술 견수와 우수한 수술 성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성형안과 분야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 훌륭한 지도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고민 없이 서울아산병원 연수를 선택했습니다.



첫 해외연수로 서울아산병원을 찾았습니다!

해외의학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교류팀을 비롯해 모든 병원 구성원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병원에 없는 것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기숙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가, 은행, 심지어 이발소까지(웃음)! 연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화사하게 꽂아 놓은 병원 표지석 앞에서 한컷!

말레이시아에서는 접하지 못한 고난도 수술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안과의 여러 세부 분야 중 ‘성형안과 및 재건’ 분야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눈꺼풀 재건, 눈물길 수술, 안와 재건 등 다양한 수술을 참관하며 사호석 교수님과 양민규 교수님에게 고난도 수술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난도가 높은 건 안와중양 제거 및 안와 재건술입니다. 이전까지 접해본 적 없는 케이스를 폭넓게 경험하며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진이 협력하는 모습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사호석 교수님께 수술 노하우 배우는 중
집중 또 집중!

병원 밖 한국 생활도 정말 재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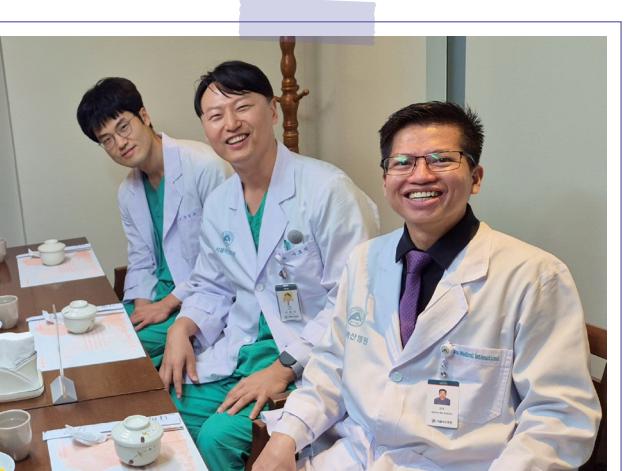
주말이 되면 동료 해외의학자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몰, 방이동 먹자골목, 뚝섬한강공원과 올림픽공원, 조금 멀리는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N서울타워가 기억에 남네요.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도 다녀왔고요. 시내 대중교통과 광역 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덕분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도 친절한 한국 사람들, 한 번 먹으면 반할 수밖에 없는 한국 음식 덕분에 매번 기분 좋은 휴일을 보내고 있답니다!



해운대 산책으로에서 동료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잇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사호석 교수님과 양민규 교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수술 중에도 차분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동료 의사 선생님, 수술실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선생님들과의 팀워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말레이시아의 젊은 의사들에게 전하고, 환자 치료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안과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연수가 끝난 뒤에도 서울아산병원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며 꾸준히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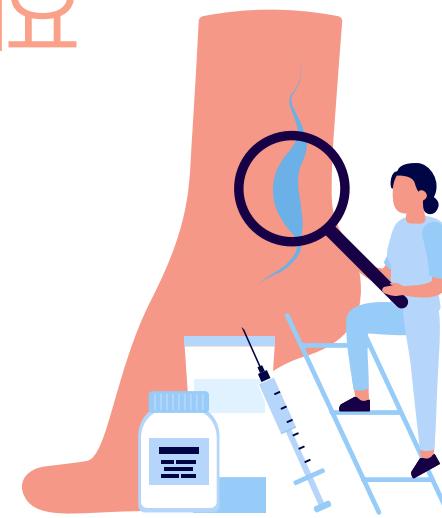


사호석 교수님, 양민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다면? 정맥혈전증을 의심하세요



호흡기내과 이장호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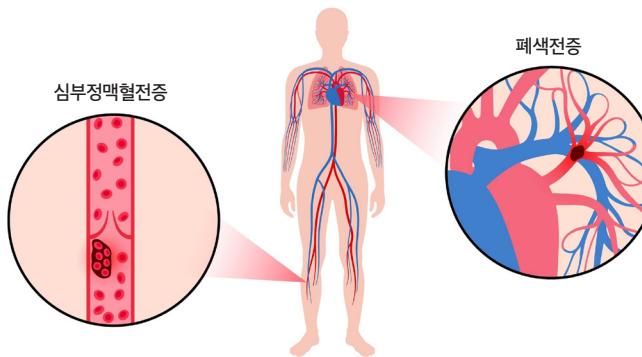


올해 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중 5화는 전공의 1년차인 고윤정 배우의 고백 장면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정맥혈전증 환자들을 자주 접하는 필자는 10년간 네 차례의 암 수술을 베푼 환자가 폐색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된 회차로 기억하고 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돼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로 응급실을 찾게 만드는 정맥혈전증. 그 원인과 예방,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맥혈전증이란

혈전은 혈관이 손상되거나 혈류가 정체될 때 혈액이 응고되며 생성되는 덩어리다. 그중 정맥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질환을 ‘정맥혈전증’이라고 한다. 정맥혈전증은 크게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으로 나뉜다. 심부정맥혈전증은 깊은 정맥, 주로 다리 정맥에서 혈전이 생기는 질환이다. 드물게 팔에서도 발생하며 캐모포트나 중심정맥관 등 의학적인 목적으로 체내 혈관에 이물질이 삽입된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해당 부위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 피부 색상 변화,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폐색전증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생긴 혈전 조각(색전)이 떨어져 나가 폐동맥을 막아버리는 응급 상황이다. 무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기침, 객혈,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정지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맥혈전증의 원인

정맥혈전증의 원인은 크게 일시적인 원인, 영구적인 원인, 그리고 원인 미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일시적인 원인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상황 정맥혈전증의 유명한 별명이 바로 ‘이코노미석 증후군’이다. 최근 30세 여성 누질랜드에서 중국으로 11시간 비행한 뒤 착륙 직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이코노미석의 좁은 환경에서 장시간 앉아 있다가 생긴 심부정맥혈전이 착륙 후 떨어져 나가 폐색전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큰 수술이나 외상, 여성호르몬제 또는 피임약 복용 등도 일시적으로 혈전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다.

영구적인 원인

암 영구적인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이다. 완치되지 않은 암과 연관해 정맥혈전증이 발생해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말하면, 정맥혈전증이 발생한 원인 중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건강검진이나 추가 검사를 권한다.

희귀 질환 항인지질증후군, 단백질 C 결핍증 등 혈전을 쉽게 유발하는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원인 미상

위와 같은 요인들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정맥혈전증의 치료와 예방 방법

정맥혈전증이 매우 심한 경우 약물이나 시술로 혈전을 직접 녹이거나 응급수술로 혈전을 제거한다. 수술 후 또는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사용한다. 항응고제 치료는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는데 그 이유는 3개월 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후 추가적인 치료 여부는 정맥혈전증의 원인에 따라 결정한다. 원인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항응고제 치료를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본다. 암처럼 원인이 해결되지 않거나 찾지 못한 경우에는 재발 예방 목적으로 항응고제 치료를 장기간 유지하게 된다.

약물 치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도 중요하다.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과 같이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몸을 덜 움직여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중간중간 다리를 풀어주거나 잠깐 걷는 등 혈액 정체를 완화시켜야 한다. 압박스타킹을 사용하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자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이전에 정맥혈전증을 앓은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 전 혹은 약 처방 시 의료진에게 병력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받는 것이 치명적인 정맥혈전증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맥혈전증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발병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위험 요인을 알고 일상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평소 다리 부종이나 통증,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해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자.

슬픔은 나누고 행복을 채우는 ‘온:담회’



암병원간호2팀 전주경 유닛 매니저

신입 간호사 시절, 50대 여성 환자의 임종 순간은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다. 폐암으로 긴 투병을 이어가던 환자는 치료실 한편에서 마지막을 맞았다. 곁을 지키며 흐느끼던 세 딸과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내 또래의 딸들을 둔 모습이 나의 엄마와 겹쳐 보였고, 울고 있던 딸이 마치 나 자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이나 눈물을 삼킨 끝에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아직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기에 애써 간호를 이어가야 했다.

종양내과 병동에서는 하루 평균 1명의 말기 암환자가 사망한다. 수많은 암환자의 마지막을 마주하는 임종 간호는 때때로 나의 간호에 무력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또한 슬픔과 부담감으로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다.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임상 경험에 쌓이면서 이 질문은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간호사가 아닌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환자의 편안하고 존엄한 죽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나는 환자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무엇보다 ‘간호사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생애 말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경험이 힘듦과 슬픔을 넘어 사랑과 연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정서적 지지와 회복을 돋는 ‘온:담회’를 시작했다.

온담회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는 모임’의 뜻을 담고 있다. 암병원 간호1팀과 2팀 간호사들이 격월로 자유롭게 모여 생애 말기 환자를 돌보며 느끼는 감정, 어려움,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지지해주는 시간을 갖는다. 나 혼자 품고 있던 생각과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회복의 힘을 얻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다.

온담회는 2025년 5월 27일 임종 간호 교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됐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임종 간호 경험과 생각 나누기, 해외 병원의 임종 간호 사례, 임종실의 핵심 가치 공유, 임종기 환자의 욕창 간호 경험 등 다양했다. 총 163명의 간호사가 참여했으며 모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점이었다. “임종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 동행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임종 간호는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임종 간호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배워가고 있다. 누군가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간호사로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환자의 지나온 삶에 귀 기울인다. 통증 없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돋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간호한다. 무엇보다 환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온담회는 아직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오늘도 우리는 바쁜 현장 속에서 누군가의 마지막 여정을 동행하는 행복한 간호사로 한 걸음씩 성장해 가고 있다.

‘글로벌 AMC’를 향한 열정

우리 병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어벤저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아랍어 등 외국어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지식과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을 배우고, 교육 후에는 실제 외국인 환자 관련 업무에 적용해보는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최근 나눔 활동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진료지원팀 정미희 과장, 국제교류팀 배기성 과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을 들어보았다. <편집실>



왼쪽부터 진료지원팀 정미희 과장, 국제교류팀 배기성 과장

글로벌 어벤저스에 지원한 계기는

정미희 지원 당시 소화기질환 환자를 간호하는 113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동안 병원에서 쌓은 간호 경험을 해외 파견 현장에서도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감사하게도 내년 아랍에미리트에 개원 예정인 ‘UAE아산소화기병원’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 아랍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껴 지원했다.

배기성 국제교류팀에서 중동 지역 마케팅과 환자 진료비 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동 외교관과 해외의학자 등 아랍어 사용자와 소통할 일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글로벌 의료 무대에서 높아지는 우리 병원의 위상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고 싶어 글로벌 어벤저스 활동을 시작했다.

어떤 나눔 활동을 했는지

정미희 외국인 환자 간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퇴원환자 안내문, 환자 참여 인수인계 시나리오, 통증 사정 보조도구 등을 영문으로 제작했다. 교육과정에서 배운 영어를 잊지 않기 위해 동료들과 주 5회 스터디도 진행했다. 2년 가까이 진행해 오니 외국인 환자와의 소통과 간호가 훨씬 수월해졌다. 언어야말로 내 간호가

환자의 마음에 닿게 만드는 도구임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배기성 외국인 환자 접점 부서의 직원들을 위해 아랍어 학습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인사말부터 진료, 수납 관련 표현까지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을 위한 병원 이용 안내 영상도 영어와 아랍어 버전으로 각각 제작했다. 중동 환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만들었는데 오히려 해외의학자들이 더 자주 활용했다(웃음). 영상 덕분에 병원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들도 있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정미희 매주 월요일이면 글로벌 어벤저스 동료 수강생들과 아카데미 강의실에 모였다. 영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서로 최선을 다했고 아랍어 시험 준비를 위해 연습지에 단어를 빼곡히 쓰며 공부했다. 동료들과 함께 자축하던 순간도 잊을 수 없다. 함께 배우고 성장한 시간들이 앞으로의 병원 생활에서도 큰 힘이 될 것 같다.

앞으로의 목표는

정미희 외국어 구사 능력만 뛰어난 간호사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며 열린 시각으로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또 우리 병원의 간호 철학이 UAE아산소화기병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돋고 싶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성장하며 ‘글로벌 AMC’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겠다. 배기성 아랍어를 6개월 이상 해왔지만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낀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계속 복습하고 아랍어 학습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과 스터디도 이어가려 한다. 중동 국가 마케팅 담당자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우리 병원의 우수한 의료수준이 더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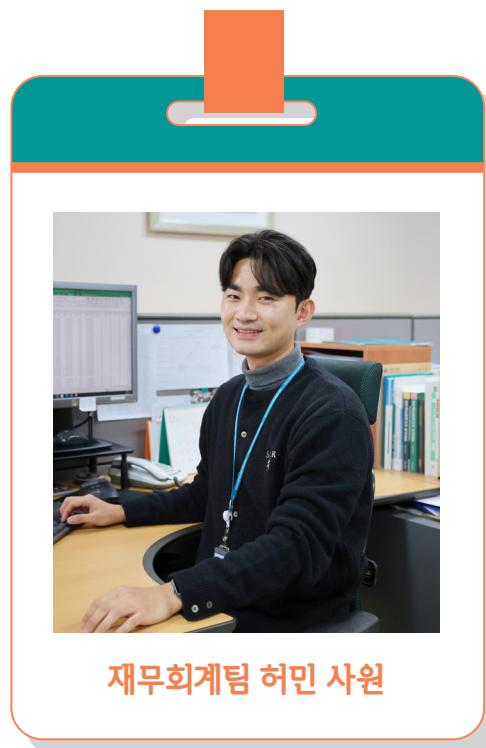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인연이 시작됐어요”

입사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우리 병원에서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렇게 열정적인 선임들과 함께라면 어떤 과업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료 현장에는 의료진 외에 병원 경영과 행정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듬해 신입 공채에 지원했는데 운명처럼 합격했습니다. 원천세와 연말정산 실무 교육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제가 담당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뜻깊게 느껴졌어요. 국내 최고 병원에서 일하는 자부심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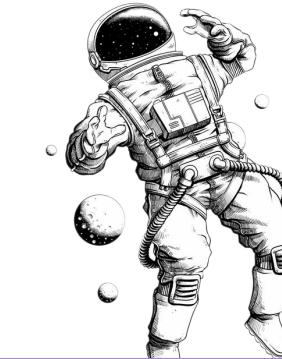
맡고 있는 업무는 병원에 발급된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 한도 조정과 해외사용 승인, 발급 및 갱신, 법인카드 사용 내역 모니터링과 비용 처리 안내 등을 주로 담당해요. 부서비의국비 배정,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업무도 맡고요. 올해 9개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백데이터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협상에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관련 역량을 배울 수 있었고, 병원의 비용 절감에 중요한 과업인 만큼 책임감과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해에는 2025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원천세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기억에 남는 칭찬은 ‘선생님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라는 칭찬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캠퍼한 칭찬글을 보며 한동안 바보처럼 웃곤 했습니다. 업무 중에 정말 다양한 직종의 선생님들께 질문을 받아요. 그때마다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지 고민해봅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도 바쁘거나 힘든 순간에는 예민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하려는 태도’가 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선임들을 보며 우리 병원에 오고 싶었던 것처럼, 하는 일과 업무 환경은 다르더라도 병원의 모든 직원분께 힘이 되는 직원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발자국



암병원간호1팀 최진 대리

달에 첫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마이클 콜린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과 함께 달에 갔지만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딜 두 명은 착륙선으로 보내고 지구로의 무사 귀환을 위해 사령선에서 홀로 대기해야 했던 마이클의 이야기를 다룬 1인 뮤지컬이다. 달에 내려간 우주비행사들과 같은 훈련을 받았지만 달에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발자국을 남기지 못한 그의 여정을 그린다.

마이클은 공군 조종 장교로 임관해 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자주 이사 다니는 동안 늘 자신과 함께했던 달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꿈을 품고 나사(NASA)에 들어간다. 마침내 그는 그토록 원했던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가게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뮤지컬에서 직접 확인하시길)로 사령선에 남아 두 우주비행사의 지구 귀환에 큰 역할을 한다. 이후 달에 갈 기회가 생기지만 이를 마다하고 은퇴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이 뮤지컬은 몇 차례 공개 리딩 공연(의상, 동선, 무대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가 대본의 일부를 보며 읽거나 노래하는 등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공연)을 통해 뮤지컬을 사랑하는 관객과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나 역시 리딩공연을 보고 실제 공연을 기대했다.

실제 공연을 오픈 직후에 관람했는데 초반임에도 연기는 안정적이었고 음악과 스토리 역시 1인극 특유의 빈 공간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잘 짜여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창작 뮤지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천문학에 관심 있는 관객이라면 조금 거슬릴 수 있는 표현(예를 들어 지구를 별이라고

하는 등)이 있지만 과학 공연이 아니므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길 바란다.

병원보를 통해 이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1등만 기억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사는 나에게 마이클의 여정이 큰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끝까지 달에 내려가겠다고 했다면 닐과 버즈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달에 발자국을 남기려는 인류의 기대는 단순한 염원으로만 남았을지 모른다. 위대한 업적 뒤에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한 남자가 있었기에 인류가 달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스스로 이룬 것이 있는지, 성과를 냈는지 고민하며 가슴이 훈한 밤이 있다면 하늘에 뜬 달을 보며 아무도 볼 수 없는 뒷면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온 마이클 콜린스를 기억하길. 거칠고 막막한 세상을 한 해 동안 차근차근 걸어온 것 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뜻을 다 한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지금은 1등으로 찍힌 내 발자국에 박수받을 때가 아닌,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서 조용히 나의 일을 해야 할 때일지 모른다. 올 한 해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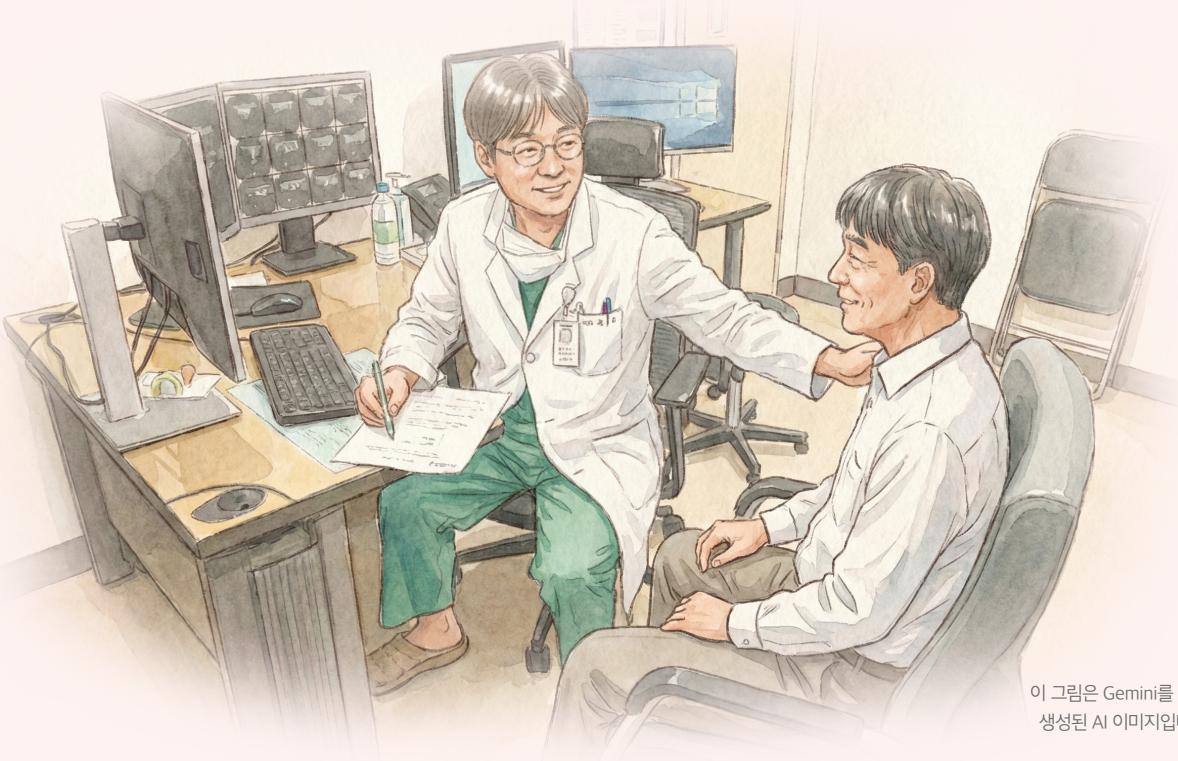
비하인드 더 문

연출자 : 김지호
관람시간 : 90분
공연기간 : 2025.11.11. ~ 2026.02.08.
장소 : 총무아트센터 증극장 블랙

의사이자, 환자로서

저는 현재 지방 의료원 명예 원장으로 근무하며 의료 취약지역 이웃들을 돋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의료인이지만 암이라는 진단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의술과 따뜻한 말, 세심한 배려가 위로와 희망이 됐습니다. “수술이 잘 됐고, 치료도 잘 되고 있으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치료 과정을 견디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사와 환자를 만나왔지만, 교수님처럼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의사는 흔치 않습니다. 교수님의 진료는 제가 지향해야 할 의료인의 모습을 되새기게 해 주었습니다.

올해 말 갑상선암 완치를 앞두고, 또 다른 암 치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갑상선암을 완치로 이끌어주신 교수님 덕분에 이번에도 잘 아겨낼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진심을 다해 치료해 준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그림은 Gemini를 통해
생성된 AI 이미지입니다.

“환자가 보내준 글을 읽으며 의사의 한마디가 환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과분한 칭찬에 환자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며 더 노력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도 갑상선암 때처럼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치료의 여정이 순조롭기를 바라며 빠르고 건강한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내분비외과 정기욱 교수

※ ‘감사우체통’에서는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소화기내시경팀 박현경 선임기능

‘감사우체통 - 진통제보다 큰 힘이 된 한마디’를 읽으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울고 웃게 한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수술 후 의료진이 두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예요”라고 해주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말 한마디의 힘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건진운영팀 진주희 대리

제가 인생영화로 꼽는 <패밀리맨>과 같은 제목의 ‘리얼스토리 - 패밀리맨’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환자의 경험담을 통해 영화가 전하던 메시지처럼 ‘삶의 소중함과 행복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어요. 따뜻한 여운을 남겨줘 감사합니다.

암병원간호2팀 김래희 차장

‘나의 취미생활 - 렌즈 너머로 본 세상’을 읽고 바쁜 업무 속에서 취미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경직된 일상에 작은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부럽고, 덕분에 좋은 에너지를 얻었어요!

임상시험센터 최민경 사원

병원에서 지내다 보면 다른 부서 소식을 알기 어려운데, 뉴스와 코너 덕분에 다양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 좋아요. 병원보는 새로운 시각을 넓혀주는 창구 같아요~

병리팀 이신영 사원

‘헬스에디터’를 통해 주사형 비만치료제에 대해 흥미롭게 읽었어요.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비만약은 어디까지나 생활습관 개선을 돋는 보조 도구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습니다.

풍납동 사진관

함께 땀 흘리며 하나 된 우리

수많은 직종과 부서가 함께 일하는 혈관조영실. 바쁜 현장에서 서로를 알아갈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혈관조영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땀 흘리며 공을 주고받고 목청껏 응원하며 웃고 대화하는 순간들 속에 지금껏 나누지 못한 마음들이 전해졌습니다.

친목을 넘어 협업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 앞으로도 혈관조영실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